



## 아들과 함께한 한강답사

문수남 (서울북공업고등학교 토목과 교사)

**자** 전거나 자동차의 작동원리를 모두 알고 운전을 한다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이 들어 지금처럼 많은 운전자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은 기술과 기능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 심지어는 우리사회나 생활 전반에 한강으로 유입하는 지천인 탄천이나 중랑천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거품이 끼어있고 국민 1일 1인당 물사용량도 서구 유럽의 선진국보다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절약의 이유를 알려주기도 전에 무조건 물절약을 강조, 강요해야하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강의 교량수를 헤아릴때 노량대교와 같은 하천변교는 갯수에서 제외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교량의 주목적인 횡단의 의미는 같으나 본류가 아닌 지천에서의 교량이라는 점때문 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가 급변 하면서 금전만능, 일등 지상주의 등으로 지향하다 보니 보이는 것만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더욱 많다고 생각 됩니다.

이런 여러가지 생각들, 생활의 상념과 살면서 심지어 버리고 싶은 일까지도 서울에서 출생 이후부터 계속 서울에서만 살아온 나로서는 한강에 가거나 한강변을 지날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가운데 3% 만이 담수이고 그중 3/4이 극지방에 얼음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쉽게 접수, 취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불과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이 순환과정을 통해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물을

마시며 물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물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며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돕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의발상지도 하천, 해안을 중심으로 발생, 번성하였고 우리나라도 한강을 두고 삼국시대가 존립하였으며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한탄강, 임진강, 한강 주위에는 흐르는 물의 양에 비례하여 크고 작은 산들이 있고 이 산들을 중심으로 봉수(봉화)터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로부터 한강의 중요도는 가히 짐작이 갑니다.

우리나라 중부지역 강 주변의 문화 중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유적지는 도라산, 검단산, 봉암리 봉수와 행주산성, 덕진산성, 오두산성, 월룡산성, 용미리, 봉서산성과 장산진, 임진진을 들 수 있으며 성지로는 급파리, 호로고루, 당포 등이며 육계토성과 칠중성, 아이성, 수철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릴적 어머니의 말씀 중에 「...물 쓰듯이...」라는 뜻 속에서 풍부함으로 상징되었던 우리나라의 물은 대동강 물도 팔 수 있다는 개념이 나와서인지 이제는 부족과 판매의 대상이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빨래 중에 물 쓰듯이 돈좀 실컷 썼으면 하시던 어머니는 빨래 행군 물까지도 허드레 물로 재사용하시며 심지어는 걸레를 빨고 그 다음에는 화단에 뿌리시곤 하셨습니다.

말씀 중에는 분명히 낭비 같았지만 그 결과가 아주 달라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물에 대한 정책 변화도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어 우리는 분명 친수의 시대 속에서 UN이 정한 제4회 「세계 물의

날」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용수 사용이 많은 7월 1일로 기념해 오다가 1995년부터 국제화, 세계화에 맞춰 3월 22일로 기념하게 된 것이다.

아들 하나 밖에 두지못한 이유로 자연히 아들과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주려고 한 뜻도 있어 사실 많은 곳을 데리고 다녔으며 그때마다 내가 알고있는 역사, 사회, 지리, 과학 등에 관한 내용들을 들려주곤 하여 또래 친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국내여행을 한 편입니다.

우선 제주도, 울릉도, 홍도, 완도, 제부도, 오동도 기행을 통해 바다와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 주려는 뜻도 있었고 한강 상류, 임진강, 한탄강 등에서 물놀이, 백학저수지 등에서의 낚시를 통해 물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여행일정이 주로 물과 연관되다 보니 산을 찾아도 그 나름대로 이름 붙여진 폭포 까지는 항상 등산을 하는 그야말로 물을 중심으로 하는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통과하는 한강변에는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삼성산 등 산세가 좋아 북한산온천, 서울온천, 용마산자연온천, 위커힐온천, 여원사, 스포타임이 온천지구로 공인되어 있고 구과발, 성동백화점, 리버사이드 호텔, 나이아가라호텔, 서울수도사업소 지역이 온천지역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도봉천, 우이천, 중랑천, 당현천, 성내천, 세곡천, 여의천, 양재천, 탄천, 시흥천, 도림천, 개화천, 오류천, 안양천, 불광천, 봉원천과 같은 지천과 방학천, 묵동천과 같은 일부 복개 지천과 대동천, 가오천, 화계천, 월곡천, 성북천, 청계천, 면목천, 전농천, 사당천, 반포천, 봉천천, 대방천, 녹번천, 홍제천과 같은 복개 지천이 있어 이들 주변에는 한강의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 유적지를 보면 올림픽도로 행주대교에서 광진교를 향해 동쪽 방향으로 강북 쪽에는 행주산성, 양화도, 망원정, 절두산, 외인묘지, 광흥창, 토정지, 새남터, 원효로성당, 서빙고부근당, 이태원, 독서당지, 동빙고, 주뫼개, 입석포, 살곶이 다리 등이 있고 반대편 서쪽으로 한강 남단에는

광진, 풍납토성, 올림픽공원, 암사동선사유적지, 몽촌토성, 석촌동벽제고분, 현인능, 삼릉, 봉은사, 삼전도비, 송파진, 풍납토성, 종합운동장, 압구정, 잠원, 국립묘지, 노량진용양봉지점, 사육신묘, 염창, 광주암, 공암나루, 약사사와 같은 문화가 있는 역사의 강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운명과 함께 역사를 흘러온 강이어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할 만큼 한강은 우리 수도 서울의 젖줄이기도 합니다.

「물」은 중세 국어에 「물」로 표기되었고 신라어에는 「勿」(물)로 표기되어 몽골어의 “moren(강)”, 통구스의 “mu(물)”, 만주어의 “mu-ke(물)”과 비교되며 물의 15세기 표현은 「물」이며 일본의 “미즈 mizu 水”는 국어 “물” 건너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신화에서 창조의 원천, 풍요, 생명력, 재생의 의미로 무속, 민속적인 의미로는 생산력, 생명력을 나타내며 풍습적으로 생산력과 정화력을 지니고 있으며 종교적으로 해석해 볼 때 신의 공물(貢物), 정화력, 청정, 치병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양문화권 중 중국에서는 신의 처소와 청렴, 일본에서는 정화와 요괴의 거처로 표현되며 현대 서양에서는 무상(無常), 생명의 근원, 정화, 부드러움, 난폭함을 나타내며 역사 문화적으로는 신성, 생명력, 자연의 욕정, 여자, 욕정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림을 통한 회화에서는 청정을 나타냈고 이와같은 물의 여러 가지 뜻은 물의 순환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가지 현상을 우리 인간의 잣대로 보아온 형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강」은 한자 강(江)의 음으로 수(水)와 공(工)이 합쳐진 형성문자로 볼 수 있으며 「강」은 신화에서 모태, 경계선 무속, 민속적인 의미로는 수신의 거처를 나타내며 풍습적으로 경계선과 길조, 풍요를 지니고 있으며 종교적으로 해석해 볼때 조화, 거처, 은일자의 거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양문화권 중 중국에서는 수신, 순리, 국가, 은일처 표현되며 현대 서양에서는 신의 은총, 공포, 형벌, 정화, 재생, 인간적 욕망의 흐름, 부정을 나타내며 역사 문화적으로는 차안과 피안의 경계, 산의 대응물,

자연, 투명성, 거울, 세월, 역사의 증인, 두 공간의 분리 또는 매개물을 나타내기도 하며 그림에서는 유유 자적인 생활을 나타내며 이와같은 강의 여러가지 뜻은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가지 현상 즉, 직강하와 사행성을 우리의 주관으로 보아온 형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년평균 강우량은 세계평균의 1.3배나 될만큼 적지않은 강우기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UN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 물부족 국가가 된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강우 특성은 극심한 계절적 불균형과 하천의 하상계수가 300~500으로 유럽의 10~30보다 20~30배가 커서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운하와 주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수중보에 의한 하천 수위와 유량을 유지하여 그래도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독일 연방 공화국의 프로젝트 17(Projekt 17)은 2000년 하노버 세계무역박람회의 개최와 아울러 기존의 소규모의 동서운하망의 직선화, 광폭화 연결인데 베를린(Berlin), 포츠담(Potsdam),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막대부룩(Braunschweig), 하노버(Hannover)간을 운하로 연결하여 폭 11.40m, 길이 110m, 높이 2.80m의 2000톤급의 배가 주운하여 객차 67량과 같은 수송력을 가질수 있는 시설로 건설중이며 프로젝트 17 계획중 막대부룩에는 수위차가 다른 버저(Weser), 엘베(Elbe)강에서 배를 이동시켜 주는 선착장(Rothensee Schiffshebewerk)과 엘베-하벨(Elbe-Havel) 운하 공사를 하고 있으며 그 현장을 1996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유역간 물이동이 광역상수도 망에서 자유로와져 유역간 수계 연계와 주운까지 발전하여 시화호와 같이 수질이 오염된 호소수를 희석수의 개념으로 정화시키는일,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된 용수공급과 수질개선 문제, 최근 남부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한 남한강 물의 낙동강으로의 연계, 하구언에서의 수질개선과 같은 문제 해결법을 구상할 수 있었으며 내년 부터는 서해안 시대와 연계 할 경인운하가 착공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지만 한강 하류의 수질개선을 포기하고 운하만 시공하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 연방 공화국의 프로젝트 17 중 수위차가 다른 곳에서 배를 이동시켜주는 방법은 남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를 운하로 연결할 때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광역상수도 취수관계로 광나루 지구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이제 윈드서핑, 낚시와 같은 레포츠가 금지되었고 그 인구가 성산대교가 있는 양화, 망원지구로 이동한 이후 부터 올림픽 도로 염창교 주변 한강 고수부지에는 많은 낚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리를 잘 잡으면 몇자짜리 잉어도 쉽게 건져 올릴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낚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잡힌 물고기 중 잉어 외에는 모두 버리기 때문에 죽은 물고기가 그대로 수면위에 떠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강에 죽은 물고기가 떠가는 현실은 앞에 난지도를 성토한 흠높이 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가양하수처리장에서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의 구상과 같이 물을 소중하게 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 그래도 한강 앞에 설수 있지 않을 까요. 🌱